

진주 대평면.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, 진양호 상류 환경정화

최창민 | 승인 2024.06.04 17:33

진주시 대평면과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지난 3일 제29회 환경의 날을 맞아 대평면 소재 진양호 상류 유수지 '환경정화 활동'을 실시했다.

5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합동 환경정화 활동은 대평면 자율방재단 등 대평면 주민과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해 진양호 상수원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영농폐기물 및 불법투기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.

대평면 딸기특화단지 유수지 인근은 청동기 박물관과 자전거 도로가 있고 주변경관이 아름다워 진주시민 및 외부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, 불법투기 쓰레기와 우수기 시 유입된 쓰레기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.

이에 대평면과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주변경관 개선과 진양호상수원 수질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합동으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기로 했다.

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100만 원 상당의 환경정화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제공했다.

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"지역사회와 함께 농업기반시설과 진양호 상수원 환경정비 역할을 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"며 "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되겠다"고 말했다.

남미경 대평면장은 "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한국농어촌공사에 감사드린다"며 "깨끗한 청정대평 이미지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

최창민기자 cchangmin@gnews.co.kr



대평면-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대평면 유수지 환경정화 활동

저작권자 © 경남일보 -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